

연합뉴스 메인 추가

"내 몸은 불법이 아니다" 여성 125명 '낙태 약 복용' 퍼포먼스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 2018.08.26 오후 6:46
최종수정 2018.08.26 오후 6:47

167 251

요약봇

낙태죄 폐지·'미프진' 도입 주장... "임신중단 최악·금기 아니다"



여성 125명 '낙태약 복용' 퍼포먼스(서울=연합뉴스) 2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 125명이 경구용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을 복용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2018.8.26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거리에 모여 이른바 '낙태약'을 복용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여성단체 봄알람과 페미당당, 위민온웹은 2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인공 임신 중절 허용을 주장하는 '지금 이 자리, 임신중단 치외법권' 행사를 열었다.

여성 대표 125명은 경구용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을 복용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125명은 국내에서 한 시간 동안 낙태하는 여성의 수를 추정한 숫자를 의미한다.

이들이 미프진을 복용할 때 다른 참여자 30여명은 외관상 미프진과 구분이 되지 않는 비타민 알약을 먹었다.

현행법상 임의 복용이 불법인 미프진을 누가 먹었는지 숨기기 위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법에서 낙태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미프진의 유통 자체가 불법이다. .



여성 125명 '낙태약 복용' 퍼포먼스(서울=연합뉴스) 2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 125명이 경구용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을 복용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2018.8.26

여성들은 퍼포먼스에 앞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낙태죄 폐지와 임신중단권 보장, 미프

진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임신중단은 금기도 죄악도 아니다"라며 "사회는 임신중단을 '문란한', '미혼' 여성만 하는 것이라 말하며 임신을 그런 여성이 짊어져야 할 형벌로 치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신중단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행해진 수술로 보통의 여성들은 다양한 이유로 임신중단을 선택한다"며 "낙태죄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로 임신중단권은 여성의 생명권"이라고 말했다

자유 발언에 나선 여성들은 낙태죄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임신중단은 기본권이다", "나의 몸은 불법이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회활동가 B씨는 "여성들이 수술대 위에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써야 할만한 잘못을 했다"라며 "여성이 임신중절을 선택하더라도 죽지 않고 범죄자가 되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대학생 A씨 역시 "임신은 여성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뤄져야 한다"며 "낙태죄로 여성을 옥죄는 것은 인간으로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 125명 '낙태약 복용' 퍼포먼스(서울=연합뉴스) 2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 125명이 경구용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을 복용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2018.8.26

aeran@yna.co.kr

▶ 뭐하고 놀까? #흥 ▶ 퀴즈풀고 상품받고! 뉴스퀴즈쇼 '뉴나'

▶ 네이버 홈에서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연합뉴스 메인 추가

연합뉴스에서 직접 편집하는 뉴스를 네이버 메인에서 확인하세요

연합뉴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 "임신해 퇴사 신청했더니 '머리채 흔들겠다' 폭언"
- 이순자 "전두환 알츠하이머 투병 중...법정 못 나가"
- '박항서 매직' 언제까지... "강팀 잡는 성장 뒤에 감독 있다"
- '차량 안 스킨십' 들키자 상대 여성 남친 차에 매달고 달려
- 일가족 4명 사망사건...자해한 40대 가장이 유력 용의자
- 기사 섹션 분류 가이드

베개 바꿨더니 눕자마자 기절?



꼭~자도 피곤한 이유?
 다 베개때문이었어!
 고려생활건강
 더 알아보기

| | | | | |
|-----|------|-----|-----|----------|
| 좋아요 | 훈훈해요 | 슬퍼요 | 화나요 | 후속기사 원해요 |
| 128 | 2 | 3 | 33 | 1 |

이 기사를 메인으로 추천 74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

이 기사를 메인으로 추천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메인 자동 기사배열 영역에 추천 요소로 활용됩니다.

사회 기사 모아보기

판례로 보는 사건



"전과 있으면 국민이 될 수 없나요?"
네이버 '법률'이 네이버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전체 댓글 251



내 댓글

현재 댓글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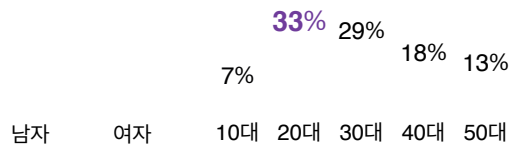
작성자 삭제
39

규정 미준수
13

누가 댓글을 썼을까요?

접기

63% 37%



통계정보는 댓글이 100개 이상 게시중일때 제공됩니다.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등록

순공감순 최신순 공감비율순

dalk****

페미를 옹호하거나 하진 않지만 임신의 주체가 되는 부모가 모두 합의할 경우나 아이의 아버지 될 자가 없는 경우라면 낙태는 허용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아무리 출산율이 떨어졌다 해도 무조건 낳기만 하라는건 참 어이없는 발상이다. 기를 생각이 없거나 여건이 안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피임을 했지만 실패했을 수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는것인데...

2018-08-26 12:41:12 신고

답글 20 235 37

cool****

임신을 하고 말고는 여성들의 권리다. 니들이 언제 대한민국 여자들을 그리 귀하게 여겼다고 임신을 해라 출산을 해라 마라냐!

2018-08-26 12:33:00 신고

답글 17 159 28

koko****

남자지만 낙태는 여성의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도망가지않았으면 저런생각을 할필요도없는데 가장큰이유가그것이죠 한여성뿐아니라 아이의 인생까지도 망칠수있는 건데 선택은 여성의 몫인게 틀림없습니다

2018-08-26 12:27:12 신고

답글 20 172 68

jjew**** 댓글모음

남성순결보존운동에 참여합시다..그러면 낙태가 많이 줄어들듯요..

2018-08-26 13:56:29 신고

답글 7 90 7

malb****

운영규정 미준수로 인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2018-08-26 15:38:14

답글 10

[댓글 더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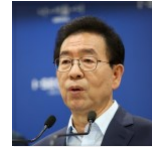




사회 댓글 많은 뉴스

오후 7시~10시까지 집계한 댓글수입니다.
총 누적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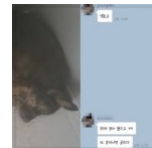
1 박원순,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한달만에 '좌초'...사실상 물건너 가
2,415



2 전두환 '광주 5·18 법정' 불출석...재판은 어떻게(종합)
2,151



3 "산 채로 냉동고에 넣고 내기했다" 유기견보호소 동물학대 의혹
725



4 강원래 "아동수당 신청하려니 직접 오라더라"
708



5 경찰, 서울대 화장실 '몰카' 고교생 구속영장 신청
506



랭킹뉴스

오후 10시~11시 까지 집계한 조회수입니다.
총 누적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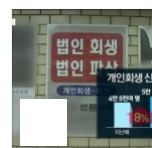
시사

경제/생활

남녀별

연령별

1 빛 돌려막다 결국...2030대 개인파산 늘어난다
85,8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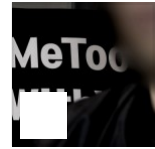
2 런던, '살인적' 월세에 ...젊은층 '공동주거'로 돌파구
47,176



3 계곡물에 차량 휩쓸려...울산 시간당 40mm 물폭탄 피해
29,336



4 [이슈플러스] 편견 탓에 말 못하는 고통...'동성 성폭력'
23,723



5 [단독] 돈스코이호 '보물선 사기' 2천여 명이 90억 원 투자
23,702



뉴스토픽

뉴스

연예·스포츠

- 1 수석대변인 홍익표 NEW
- 2 전두환 재판 불출석 NEW
- 3 민주 정책위의장 김태년 유임 NEW
- 4 여의도 용산 개발 보류
- 5 폼페이오 방북 취소

2018.08.26. 17:30 ~ 20:30 기준

| | | |
|-----|--------|--------|
| 뉴스홈 | 사회 | 세계 |
| 정치 | 언론사 구독 | 연예 |
| 생활 | 스포츠 | 메인노출이력 |
| 많이본 | 포토 | TV |
| 경제 | 오피니언 | Tech+ |

[로그인](#)

[PC버전](#)

[전체서비스](#)

[서비스안내](#) [뉴스도움말](#) [문제신고](#)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제공처 또는 네이버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NAVER Corp. © 연합뉴스